

고은 불교대하소설

또하나의 우녀

우녀는 그의 얼굴 안으로 들어갔다. 중! 소리가 맞아 있었다. 그는 아귀계의 수원처럼 무욕도에서 떠난 뒤 도무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파현을 문득 떠올리자 그의 얼굴이 나타났다. 마치 꿈 속에 나타난 것처럼. 파현의 얼굴은 피부성이었다. 아주 힘겨운 격투를 벌이고 난 직후인 것 같았다. 그의 숨결은 아직도 상난 짐승처럼 쉼없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우녀를 만나는데도 충실되었고 부릅뜬 채였다.

"관뉘라, 이 썩년아." 우녀는 도무지 어이가 없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무책이었다. 무책이 상책이었다. 그는 활랑한 성정으로 가득한 아수라의 파현에 대하여 아주 조용히 참고 있어야 하였다. 그때 갈매기 몇마리가 무욕도로 돌아왔다. 그 중의 한 마리가 파현에게 달려들어 파현의 이마를 한번 찍어 주고 날아가는 것이었다. "지놈의 갈매기까지 나를!" 하고 파현이 돌맹이를 던졌으나 그 돌맹이는 허공에 단조로운 포물선을 그리며 파도 이랑

긴 날바닥으로 수평한다는 횡수자이나 하고 있느냐... 하하... 실은 너같은 년만이다. 지금 육지의 인간계에는 별칭한 놈들이 진여를 꼬나잡겠다고 아닌 밤중에 화두라는 것을 잡고 늘어져 있는데 화두야말로 망상 중의 망상인 줄을 그놈들은 모르고 있다... 하기가 화두는 망상을 내몰아주는 또하나의 망상이므로 그 망상이 하는 일이 있기는 있다... 본래 우리 아수라족은 실로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천상계의 족속이었다. 아수라는 화생(化生)이다. 인간이나 축생처럼 태생이나 난생이 아니고 별래따위의 습생도 아니다. 아수라야말로 어느 날 불연듯 태어나는 화생이다. 사바세계 인간의 눈으로야 그런 화생을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아... 아수라는 일찍이 도리천 천상계의



“너희들 인간세계야말로 아수라보다 더 아수라요 아귀보다 더 아귀요 지옥보다 더 지옥이 아니냐”

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우녀는 기만히 서 있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파현이 풀썩 주저앉았다. 워낙 힘겨운 싸움 끝에 파현이 몸으로 주저앉아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녀의 마음 속에서는 그런 상태와 정반대였다. 그는 피부성이 파현의 뒤를 따라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그것은 아수라로 가는 길이었다. 우녀의 마음 속에는 파현의 뒤를 따라가는 자신과는 또 다른 자신의 귀가 어떤 아수라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중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었다.

그 33천을 두루 떠돌며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그런데 그 도리천의 아수라 미녀를 알아본 재석천이 그만 그 미녀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다. 그 일로 아수라는 재석천과의 싸움을 되풀이하면서 점점 아주 사납고 무서운 악신으로서의 아수라로 바뀌어졌다. 그런 뒤로 아수라는 천상계 따위를 버리고 내버리고 인간계에도 아귀계, 축생계에도 끼어들어 날마다 분쟁과 전쟁 그리고 이웃 사이의 극심한 불화로 세월을 채우는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변이, 너도 한번 이런 아수라의 계집이 되어 머리에 거머쥔 머리칼이 다 뜯기고 그런 땀과 피를 싸움 계집이 되어 보겠느냐

졌다. 생각도 달라졌다. 어딘지 짐승이 된 느낌이 들었다. 파현 그는 축생계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축생이란 사람이 기르는 짐승을 말한다. 얼드러 기다리거나 네 발로 걸어야 한다. 오직 식육과 이따금의 성육이 강하고 부자 모자 사이의 윤리나 형제지매의 윤리도 없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으로는 아수라계와 다를 바 없다. 도둑질, 살생, 빛 감지 않은 것 따위의 악행이란 그런 짐승으로 태어나는 업인(業因)이지만 그 업인에는 몇 세 이전의 잔재까지도 누적되었다가 발현되는 과보로 나타난다. 업보라는 것이 어제의 일로 오늘

는 일로 살아간다. 다만 그 축생은 바다속에서 시작되었다. 먼훗날 어떤 사람이 생명의 진화에서 생명은 일시의 바다에서 생겨나 육지로 옮겨졌다는 주장을 하기 훨씬 전에 축생계는 그 바다 속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 태고(太古)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도마뱀 꼬리에는 몇 억겁 전의 파도소리가 아득히 들리는 밤이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이런 축생은 그들이 사는 곳에 따라 하늘 육지 물로 나누어 살아가는 것과 함께 낮살이 밤살이 낮밤살이로 초식 육식 잡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윤리 이전의 세계, 이 윤리 이전의 자유가 바로 축생계의 중생에게 누리지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계가 가장 경멸하거나 천대하고 학대하는 중생계야말로 거꾸로 인간계를 꾸짖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녀 송아지는 그 정신의 우녀한테 말하였다. "야 너희들 인간세계야말로 아수라보다 더 아수라요 아귀보다 더 아귀요 지옥보다 더 지옥이 아니냐! 야 너희들 인간세계라는 곳이야말로 삼천대천세계의 법칙이나 윤율(律)을 등쳐서 재멋대로 무법천지를 지어내고 재멋대로 소리를 질러

"파현님!" 우녀가 그의 생시의 환상 속에 나타난 파현을 아주 따뜻한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파현은 꿩! 하고 침을 뱉는 것이었다. "너 이년! 아직까지 여기를 독처지하고 살아 있구나." 아를테면 아수라계의 말투로 하는 오랜만의 인사일까. "이런 요망한 년 같으니라구... 지금 내가 이렇게 싸운 한 판에 지고나자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이제 네 년의 두 다리를 짝 짝 놓을 차례다." 우녀는 이렇게 힘찬 소리를 마구 내뱉으며 다가오는 파현을 걸으려는 태연히 대하였다. "파현님! 파현님의 입이 그렇게 짝어져서야... 그 아픔이나 먼저 다스립시다. 마침 여기에 약이 남아 있습니다. 지혈제(止血劑)입니다."

궁궐의 도성에서 살 수 있는 라후리아수라(羅浮羅阿修羅)가 있다. 그런 축과 달리 아주 하층 아수라들은 바다 밑이 아니라 바닷가의 오막살이 집에서 늘 싸우면서 살고 있기도 하다. ... 네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냐? 자아, 내 말을 더 들어보이라. 아수라는 본래 일천(日天) 월천(月天)이 비치는 것을 사람들이 해와 달로 말하고 있거니와 그것들이 내는 빛이라는 것을 아주 저주한다. 그래서 햇빛을 잡아먹으면 일식이요 달빛을 삼켜버리면 월식이 되기도 한다. 다만 아수라는 천상계를 미워하지만 그 천상계 천녀(天女)의 출만은 아주 좋아한다. 캄캄한 밤이야말로 아수라가 천녀의 출을 감상할 수 있을 때인 것이다. 어둠 속의 춤이야말로 진짜이기 좋고 춤수는 미녀들의 잔치인 것이다. 이년아 너도 그런 미녀가 되어보이라. 왜 그렇게 못생

기까지 듣고 난 우녀는 그의 귀를 막았다. 이제 파현의 몸이 어느만큼 회복되었다. 그가 원한을 품고 말하였다. "어디 두고보자. 조금 있다가 그놈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우녀가 그런 파현을 말렸다. "파현님 재빨리 옛 도반들이 공부하는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 함께 아라한을 성취하시지요." "네년이 나에게 감히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구나... 두 다리를 짝 짝 놓으려다가 그만 둔 참이라... 어서 너 같은 년은 여기서 꺼져라... 꺼져서... 돼지 돼지가 사는 세상에서 가서 꿀꿀거리라. ... 이 햇바닥에 역새들이나 돌아날 년아." 이제 우녀는 우녀 자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얼굴도 달라

의 일이 되는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어제의 수많은 어재들의 찌꺼기나 군더더기, 티끌 하나도 흐지부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것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른 원인들이 함께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인지 모른다. 축생이란 사람이 기르는 짐승만을 뜻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다 아우르는 뜻이다. 그것은 육인으로 보이지 않는 균에서부터 지난 시대의 신데미 같은 공룡에 이르기까지 그 축생의 종류는 3억종이나 되고도 남는다. 하늘을 나는 새, 땅 위를 기는 짐승 그리고 별래들의 세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인간계와 함께 사는 생명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아니 인간계 뿐 아니라 천상계에도 동참해서 천인들이 남긴 것을 얻어서 즐기

우녀는 벌써 그의 마음 속에서 한 마리의 송아지로 태어나 무욕도에 살고 있는 열다섯째의 어부집 중의 한 집에 살고 있었다. 그 언제인지 알 수 없으리. 그러나 그 언제인가 무욕도는 지금처럼 우녀 혼자서 살아가는 섬이 아니라 어느덧 어부들의 마을이 되어있는 과거나 미래의 어느 때가 나타나 거기에 우녀라는 송아지도 어미소의 공동체를 따라붙어 섬 꼭대기의 풀밭에서 파리를 쫓는 꼬리 동작이 점점 민첩해지고 있었다. 어미소는 어느 소인지 몰랐다. 그러므로 인간계에서는 근본 없는 신세로 아비를 모르는 아이가 있거니와 그것이 바로 축생계를 담은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우녀 송아지 앞에 태어난 큰 소가 제 어미 소와의 교점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녀 송아지였던 사실은 아무런 뜻도 없다.

대고 있지 않느냐. ... 어디 그것만이었느냐. 너희들이야말로 축생의 모든 생명을 마구 잡아먹고 심지어는 아귀까지도 잡아서 아귀요리를 해먹으며 아 맛있도다 맛있도다 하고 좋아하지 않느냐. ... 앉아서 먹다가 누워서 먹다가 때에 음식이 가득하면 목에 손가락을 넣어 마구 깨워내고 다시 먹지 않느냐. ... 너희들 인간계야말로 천상도나 아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의 다섯 도(道) 중생 가운데서 가장 더럽고 가장 나쁜 족속이 아니냐. ... 중생이란 그 무엇이었나. 아직 헤탈하지 못한 미혹의 생령 아니더냐. 그러나 다른 한편 중생이란 무릇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과 죽음의 한없는 축복이 아니었느냐. 인간계! 이것이 세계의 재앙이 아니더냐."

그림·조향숙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상, 천불조상,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정염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단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 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